

朴文秀傳

전 시 문 박



63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박 문 수 [朴文秀] 全

원련하 예와이제 맛잇는 리야기 滿天下 古往今來 趣味酌說話

금슈 호연성 현령선병준 錦水 胡然生 玄翎仙丙周輯

◎제일회박문슈어사가구천동인민을신도로다사린일
第一回 朴文秀御史具千洞人民神道

화설조선영종시대에박문슈어사난유명한남도어사이라재학과덕망이조야충만
話說朝鮮英宗時代 朴文秀御史有名南道御史才學德望朝野充滿

하더니이때에호서적리린좌와령남정희랑등이군사를니르키여란을지을시상에
하더니 이때에 호서적리린 좌와령 남정희랑 등이 군사를 니르키 여란을 지을 시상에

병기를실고청주에드러와병사리봉상과영장남연평을죽이고안성청룡산상에
兵器를 실고 청주에 드러와 병사리 봉상과 영장 남연평을 죽이고 안성 청룡산상에

치거늘봉조하최규서가변을고하미영묘조대경하스오명항과박문수를명하
치거늘 봉조하 최규서가 변을 고하 미영 묘조 대경 하스 오명 항과 박문수를 명하

적을도멸한후호려민우를부찰하스특별이박문슈를명하야팔도음행어사로
적을 도멸한 후 호려 민우를 부찰 하스 특별이 박문슈를 명하야 팔도 음행 어사로

하니박문슈고두스은하고슈의사로팔도에음행할시폐의과립에죽장망체로행운류
하니 박문슈 고두스 은하 고슈의 사로 팔도에 음행 할 시 폐의 과립에 죽장 망체로 행운류

수를싸루어한강이남경고충청경상도로시작하야슈령방백의행정득실과각동각리
수를 싸루어 한강이 남경고 충청경상도로 시작 하야 슈령방백의 행정 득실과 각동 각리

의인민정도를일하수식한후에전라도드러갈시일변덕유산속으로드러가니덕
의인민정도를 일하 수식한 후에 전라도 드러갈 시 일변덕 유산속으로 드러가니 덕

유산이라하는산은남방에유명한장산이라동학이심수하고봉만이중첩하야주야스
유산이라 하는 산은 남방에 유명한 장산이라 동학이 심수하고 봉만이 중첩 하야 주야스

을느르니늘근사름이만면수색으로대답하되자과의성은유이오일홈은안거라하며
장란수석에안으로드러가더니반과를가지고나오거늘박어스치사하며밥상을밧
은후에유인의래력을자세히무른뒤유안거즐기여대답지아니하더니박어스의관
곡히반문함을보고자과의전후세말을차례로말하되본적은경성이러니그안히최
씨로더부러삼세된아들득柱
나히장성하미무주김정언의질녀로더부러성취시거스는가게는좌식산공이라점
零星寒苦侵虜
령성하야한고가침로하더니마침이동리구화선이라하는사름의소개로이곳으로
이하야오날날까지학구로종소한지십유여년이라이곳은스방륙십리무인지경이니
土人開拓
도인의개척한지가어느시대인지미상하나다만구가와천가두성이셔로전하야거두
함으로이동리일홈을구천동이라칭하는지라구천동벽여호에니집하나이셔기여스
兩姓學債收入
나량성의학쇄슈입으로쳐음드러올때에비하면생활程度가풍족하다이르노이다박
御史主人
어스다시못되니유인의집오날저녁일을못고자하노니일야지정이만리성이라주
人隱諱窓
인은모름조기는휘치마소서아까창밧씩셔니가드를썩에유인이소년을대하야행흥

時雲霧 不絶豺狼 徘徊居民以外 飛鳥任意出入
 시에 운무가 부절하고 사량이 배회하니 거민이 외에는 비도라도 임의로 출입을 못하는
 深山窮谷 參天樹木 漸々
 곳이라 박어사 | 반겨 곡경으로 점점드러가니 어연간 일락서산하야 황혼이 장근한데
 日彷徨朴御史 飢渴自甚 落葉
 심산궁곡에 길이 업서지고 참련한 수목속에 짐승의 소태만들니는 지라 무인공산에 종
 日彷徨朴御史 飢渴自甚 落葉
 일방 황하던 박어사 | 기갈이 자심하야 락엽위에 업디렸더니 전면에 등잔불이 은은이
 朴御史 一驚一喜
 뵈이 거늘 박어스 일경일회하야 등스 불을 차져가니 천만의 외에 인가가 질비한
 夜深
 촌장이 라이석야 심하야 집집이 문을 닫고 만뢰가 구적한데 한글목을 당도하니 창
 燈
 로 등스 불이 빗최이며 방안으로 서사름의 소리 괴이하게 들니 거늘 어사 되경하야
 窓
 홀로 빗겨서 서창틈으로 엿보니 늘근사름하나 이 단도를 썬여 들고 누은 사람의 비위에
 窓
 을 너안저서 칼로 찌르려 하며 이놈 죽어라 이놈 죽어라 죽어라 쇼태를 련하야 하난대
 窓門
 누은 사름은 다 만죽갓습니 다 하는 말썬이라 어사 | 정신을 진정하야 기침을 크게 하고
 主人
 창문을 두다 리며 주인을 부르니 방안이 괴괴하며 이윽고 주인이나 와 영접하는지라 어
 房
 사 | 주인을 따라 방안에 드러서니 누엇든 사름은 업서지고 단도를 가지고 행흉하랴하
 雷
 든 들근사람 썬이라 어스 | 죄덩후에 자기의 성명거주를 통하며 길을 일코 드러운 세말
 御史 坐定後 自己 姓名居住 通
 主人 短刀 迎接 行凶 細末

코자함은엇지한연고이뇨유안거늘내여말이업더니량구에니르되공이임의알고못

는지라니엇지말하지아니하리오그소년은곳나의아들득주이니이웃에천운셔라하

는조이잇셔^者의재종질녀를취하여며느리를삼으니그아들의일흔은천동슈라천운

서의집이본래유막불슈로동슈의처가부정호행실잇는지오린지라이웃이모다아

바이러니불의에니자식득주와이번에동간이잇다하야천운셔의부재서로되하

의집부녀가실행함은일문에슈치라그형의를보복코져할진대유가의집부녀를탈취

함이가하다하고니집에통기하되니안히최씨는천운셔가탈취하고나의조식득주

안히천동슈가탈취하되혼례에정당한례식을쫓츠동일에성례이라하며혼슈와잔

치를런일작만하느니라혼례일은곳명일이라하니오날밤을지나면천가의부조가니

집에드러와서신부를내여노으라할터이니강악이부동으로저의하자는것을아니

지못하리니그욕을안저서당하는것보다차라리한칼로나의자식을죽이고나의자부

를죽이고나의안히를죽인후에나도마저이밤내로죽어서저의강포를피코저하오니

공은이곳에서잠시를머무지못할지라이길로말니인간처로떠나서급한화를면할지

니라박어사^{朴御史}도못되명일흔레하는시간이잇다하더뇨유안거대답하되신시초라하

느니다^{朴御史}락어사다시못되이곳서그중갓가온관부가상거얼마나되느뇨유안거대답

하되본군관부가서남으로칠십리라하나이다박어사^{朴御史}欣然유안거의손을잡고니르

되주인은념녀말고잇스면내이길로나갈지라명일신시내로조흔소식을통할터이

니부디안심하소서유안거다시니르되공의말을밋지못할지라부지럼시남의집으

로하야금수옥을당하게할가겁하노라박어사^{朴御史}再三勸諭後即時具千洞

떠나서남방면으로향하야갈새침침철야에수초를무릅쓰고봉학을넘어침십리무주

읍에당도하니날이임의밝은지라그고을에로문출두를할터이나창황분주중에

엇지레면을차리리오불문곡직하고삼문압해대드러마패를친이잡고음행어스출두

를볼너더라벽력같은마패소래무주읍을진동하니육방이뒤집히고스린이쇼요하며

良久

得柱

千云西

千云秀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千云

나^{御史}어사^{本官} | 본관을 대하야 초두에 못는 말이 본고을 재인 광대의 슈호를 무른대 본관이 혼
 劫^{六房}결^{指揮}에 륑방을 지휘하야 우열을 불문하고 부하에 모든 광대를 개개이 대령하니 수호
 심히 만은지라 어사 | 호령하야 쟁재 조달하는 광대로 선택하야 삼문을 쏘여 넘는 자로
 시험^{數交}하나 모든 수호에서 반이 더한지라 어사 | 분부하야 그 중에서 효용한 자로 네 명을
 골나 노은 후에 지필을 친이 잡고 군복 다섯 볼을 견변으로 그림그리여 본관을 내여 주며
 書^{依文}본^{軍服}에 의지하야 군복을 지오 되 오식을 각각 난우어 시각내로 되려오라 본관이 화망이
 化^{服色}본^{甚凶慘}에 의지하야 군복을 지오 되 오식을 각각 난우어 시각내로 되려오라 본관이 화망이
 바다보나 복식이 심히 흉참한지라 관하를 지령하야 오식 군복을 즉시에 밋치거 날 어사
 本^{驚動}부^{安慰}의 경동됨을 안위후에 네 명 광대로 군복을 령거하고 유산중으로 향하니 히가
 임의 돕혀 더라 이때에 유안거는 어제 밤과 객의 말을 반신반의 하나 권구에 대하야 그 밤
 에 참아 하수 치 못하고 날이 점々 밝어 오미 천운서의 집으로 서호구를 준비하야 자기
 大^{修理}廳^{交拜廳}을 수리하고 교박청을 버리는지라 유안거 | 이 거동을 보미 진즉 죽지 못함을 한할
 雷^{午正}이러니 오정이 기울미 천가의 집부녀 | 때를 지여 드려오며 닥으로 돌입하야 늘근
 崔^{夫人}씨 부인과 그며느리 김씨 부인을 못잡어 안치고 지분으로 다스리는지라 유씨 일문이
 脂粉

院^{罔措}황^{罔措}황^{罔措}조하야 엿지 할 줄 모르더니 정한 시간이 립박하미 천가의 로쇼 | 천운서의 부자
 를 옹위하고 드리울식 두스름의 복식이 일반으로 머리에 사모를 쓰고 허리에 각대를 띠
 엿스며 발에 수혜자를 신고 차례로 압뒤에서 서마당을 밟아 드려오니 구천동벽여호가
 一時 일시에 모아 들어다 오아 구경하며 서로 니르되 이와 갓 혼례는 인간에 처음 잇는 일이
 라 하더라 신랑 두사람이 교배청에 니르러 천운서는 좌편에서 고천동슈는 우편에서 서
 목^{次例}안을 차례로 드리며 신부의 나 오기를 련하야 재촉하더니 홀연히 마당한가 온대 서구
 경^{新婦}하든 사람이 물결갓치 갈나 지며 일위 신장이 황포황갑에 황모부월을 빗기여 들고 귀
 陳^{儼然}騰^{儼然}사^{儼然}화^{儼然}기를 돕히 들고 엄연이 거러 드려오는지라 보는자 | 모다 화갑하야 한열호로
 位^{坐定}쳐서며 감히 눈을 들어 바로 보지 못하더니 신장이 연연히 교배청으로 올너가 중앙
 에 좌정하더니 손에 가진 황모부월로 교배상을 벽력갓치 한 번 치며 동방청대 장군을
 크게 부르니 그 소리 일변 떠러지며 공중으로 서청령 소래 산곡이 진동하며 일위 신장이
 마^{青龍}당^{東方}가 온대로 떠러지니 청^{中央}청^{神將}의 청룡기를 돕히 들고 각항저방심미기를 응하야 좌
 청^{中央}룡^{神將}동방에 빗겨서 는지라 중앙 신장이 다시 부월로 상을 치며 서방벽대 장군을 부르

한자^한는^한이^한싸^한저^한려^한디^한를^한분^한별^한치^한못^한하^한더^한라^한이^한싸^한천^한운^한서^한 부^한자^한를^한잡^한어^한간^한신^한장^한은^한곳^한박^한
 文秀^{文秀}朴^朴御^御史^史 本邑^{本邑} 廣大^{廣大} 名^名 軍服^{軍服} 父^父子^子 神將^{神將} 朴^朴
 문^문슈^슈박^박어^어사^사이^이니^니본^본읍^읍에^에서^서다^다리^리고^고은^은광^광대^대네^네명^명으로^{으로}군^군복^복을^을남^남히^히여^여가^가지^지고^고유^유안^안거^거의^의집^집
 四^四方^方 千^千云^云西^西 父^父子^子 押^押領^領 具^具千^千洞^洞三^三十^十里^里 廣大^{廣大} 朴^朴
 을^을사^사방^방으로^{으로}써^써여^여넘^넘어^어드^드러^러가^가서^서천^천운^운서^서의^의부^부자^자를^를압^압령^령하^하야^야나^나오^오다^다가^가구^구천^천동^동삼^삼십^십리^리밖^밖
 各^各厚^厚 號^號令^令 千^千云^云西^西 父^父子^子 全^全羅^羅道^道 後^後 西^西北^北四^四大^大
 를^를다^다각^각과^과후^후이^이상^상주^주어^어돌^돌어^어보^보니^니고^고박^박어^어사^사는^는그^그길^길로^로나^나서^서전^전라^라도^도를^를다^다본^본후^후에^에서^서박^박문^문슈^슈의^의
 道^道次^次例^例 暗^暗行^行 京^京城^城 玉^玉階^階下^下 拜^拜伏^伏 聖^聖上^上 南^南方^方 兵^兵火^火 以^以
 도^도를^를차^차례^례로^로음^음행^행하^하고^고경^경성^성으로^{으로}도^도라^라와^와옥^옥계^계하^하에^에박^박복^복하^하니^니성^성상^상이^이깃^깃거^거하^하사^사박^박문^문슈^슈의^의
 職^職品^品 正^正二^二品^品 下^下賜^賜 內^內職^職 選^選用^用 四^四年^年 南^南方^方 兵^兵火^火 以^以
 직^직품^품을^을남^남히^히여^여정^정이^이품^품을^을하^하사^사하^하고^고니^니직^직으로^{으로}선^선용^용할^할식^식삼^삼년^년이^이지^지나^나가^가니^니남^남방^방이^이병^병화^화이^이
 後^後 民^民情^情 擾^擾擾^擾 朴^朴文^文秀^秀 命^命 三^三南^南繡^繡衣^衣 使^使 朴^朴御^御史^史 年^年前^前 具^具
 후^후에^에민^민정^정이^이오^오히^히려^려요^요한^한지^지라^라다^다시^시박^박문^문슈^슈를^를명^명하^하사^사삼^삼남^남슈^슈의^의사^사로^로나^나려^려보^보니^니박^박어^어
 史^史 奉^奉命^命 三^三南^南道^道 視^視察^察 全^全羅^羅道^道 德^德裕^裕山^山下^下 朴^朴御^御史^史 年^年前^前 具^具
 사^사 奉^奉命^命 三^三南^南道^道 視^視察^察 全^全羅^羅道^道 德^德裕^裕山^山下^下 朴^朴御^御史^史 年^年前^前 具^具
 천^천동^동드^드러^러갓^갓든^든일^일을^을문^문득^득의^의억^억하^하니^니어^어언^언간^간십^십년^년이^이되^되얏^얏도^도다^다유^유안^안거^거의^의하^하회^회엇^엇지^지됨^됨을^을알^알
 千^千洞^洞 流^流離^離乞^乞客^客 貌^貌樣^樣 具^具千^千洞^洞 以^以往^往 瓦^瓦家^家
 고^고자^자하^하야^야류^류리^리걸^걸객^객의^의모^모양^양으로^{으로}다^다시^시구^구천^천동^동을^을드^드러^러가^가니^니이^이왕^왕에^에보^보지^지못^못하^하던^던의^의가^가한^한채^채
 半^半空^空 流^流離^離乞^乞客^客 貌^貌樣^樣 具^具千^千洞^洞 以^以往^往 瓦^瓦家^家
 가^가반^반공^공에^에소^소서^서있^있는^는지^지라^라박^박어^어사^사의^의아^아하^하야^야와^와가^가로^로차^차저^저드^드러^러가^가니^니십^십년^년면^면목^목의^의희^희하^하
 主^主人^人 姓^姓名^名 俞^俞安^安居^居 朴^朴御^御史^史 疑^疑訝^訝 瓦^瓦家^家 十^十年^年面^面目^目 依^依稀^稀 朴^朴
 나^나쥬^쥬인^인의^의성^성명^명이^이곳^곳유^유안^안거^거여^여늘^늘박^박어^어사^사 一^一호^호을^을로^로실^실중^중에^에반^반기^기여^여하^하나^나유^유안^안거^거 一^一엇^엇지^지박^박

니^니여^여전^전히^히공^공중^중으로^{으로}서^서청^청령^령소^소래^래니^니러^러나^나며^며일^일위^위신^신장^장이^이마^마당^당으로^{으로}써^써려^려지^지되^되릭^릭호^호기^기를^를돕^돕
 如^如前^前 空^空中^中 聽^聽令^令 右^右白^白虎^虎西^西方^方 宛^宛然^然 中^中央^央神^神將^將 白^白虎^虎旗^旗
 히^히들^들고^고구^구루^루위^위요^요필^필좌^좌삼^삼을^을응^응하^하야^야우^우릭^릭호^호서^서방^방으로^{으로}와^와연^연이^이서^서는^는지^지라^라중^중央^央신^신장^장이^이다^다시^시
 黃^黃毛^毛鉞^鉞 交^交拜^拜床^床 南^南方^方 赤^赤帝^帝大^大將^將 軍^軍 聽^聽令^令 中^中央^央神^神將^將 空^空中^中
 황^황모^모부^부일^일을^을돕^돕히^히들^들어^어교^교배^배상^상을^을치^치며^며남^남방^방적^적제^제대^대장^장군^군을^을부^부르^르니^니청^청령^령소^소래^래다^다시^시공^공중^중에^에
 一^一位^位神^神將^將 交^交拜^拜床^床 南^南方^方 赤^赤帝^帝大^大將^將 軍^軍 聽^聽令^令 中^中央^央神^神將^將 空^空中^中
 서^서니^니러^러나^나며^며일^일위^위신^신장^장이^이떠^떠려^려지^지며^며적^적군^군의^의에^에주^주장^장이^이들^들고^고정^정귀^귀류^류성^성장^장의^의진^진을^을
 應^應 南^南朱^朱雀^雀南^南方^方 一^一位^位神^神將^將 玄^玄武^武旗^旗 中^中央^央神^神將^將 北^北方^方 黑^黑帝^帝大^大將^將 軍^軍 井^井鬼^鬼柳^柳星^星張^張翼^翼珍^珍
 應^應 南^南朱^朱雀^雀南^南方^方 一^一位^位神^神將^將 玄^玄武^武旗^旗 中^中央^央神^神將^將 北^北方^方 黑^黑帝^帝大^大將^將 軍^軍 井^井鬼^鬼柳^柳星^星張^張翼^翼珍^珍
 黑^黑巾^巾黑^黑衣^衣 一^一位^位神^神將^將 玄^玄武^武旗^旗 中^中央^央神^神將^將 北^北方^方 黑^黑帝^帝大^大將^將 軍^軍 井^井鬼^鬼柳^柳星^星張^張翼^翼珍^珍
 黑^黑巾^巾黑^黑衣^衣 一^一位^位神^神將^將 玄^玄武^武旗^旗 中^中央^央神^神將^將 北^北方^方 黑^黑帝^帝大^大將^將 軍^軍 井^井鬼^鬼柳^柳星^星張^張翼^翼珍^珍
 흑^흑건^건흑^흑의^의한^한일^일위^위신^신장^장이^이현^현무^무기^기를^를돕^돕히^히들^들고^고두^두우^우녀^녀허^허위^위실^실벽^벽을^을응^응하^하야^야북^북현^현무^무북^북방^방의^의
 應^應 南^南朱^朱雀^雀南^南方^方 一^一位^位神^神將^將 玄^玄武^武旗^旗 中^中央^央神^神將^將 北^北方^方 黑^黑帝^帝大^大將^將 軍^軍 井^井鬼^鬼柳^柳星^星張^張翼^翼珍^珍
 로^로셔^셔는^는지^지라^라사^사방^방신^신장^장이^이방^방위^위를^를정^정한^한후^후에^에중^중央^央신^신장^장이^이소^소래^래를^를돕^돕히^히하^하야^야니^니르^르되^되나^나는^는중^중
 央^央黃^黃帝^帝大^大將^將 軍^軍 玉^玉皇^皇上^上帝^帝 命^命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央^央黃^黃帝^帝大^大將^將 軍^軍 玉^玉皇^皇上^上帝^帝 命^命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洞^洞 申^申時^時初^初 惟^惟惡^惡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洞^洞 申^申時^時初^初 惟^惟惡^惡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神^神將^將 申^申時^時初^初 惟^惟惡^惡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神^神將^將 申^申時^時初^初 惟^惟惡^惡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신^신장^장을^을불^불넷^넷노^노니^니사^사방^방신^신장^장은^은병^병력^력하^하야^야이^이중^중에^에사^사모^모각^각되^되한^한두^두사^사를^를잡^잡아^아갈^갈지^지어^어다^다사^사
 神^神將^將 一^一齋^齋 聽^聽令^令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방^방신^신장^장이^이일^일제^제히^히청^청령^령하^하며^며교^교배^배상^상압^압해^해허^허슈^슈비^비갓^갓치^치서^서있^있는^는천^천운^운서^서의^의천^천동^동슈^슈두^두스^스를^를잡^잡아^아갈^갈지^지어^어다^다사^사
 門^門 風^風雨^雨 交^交拜^拜床^床 中^中央^央神^神將^將 上^上帝^帝 命^命 茂^茂朱^朱具^具千^千
 문^문밖^밖그^그로^로잡^잡아^아내^내여^여풍^풍우^우갓^갓치^치모^모러^러가^가다^다이^이날^날유^유안^안거^거집^집에^에모^모혀^혀잇^잇는^는남^남녀^녀로^로쇼^쇼 一^一신^신장^장
 威^威嚴^嚴 各^各逃^逃亡^亡 房^房 逃^逃亡^亡 神^神將^將 朴^朴
 의^의위^위엄^엄을^을보^보고^고다^다각^각기^기도^도망^망하^하야^야제^제집^집방^방안^안으로^{으로}드^드러^러가^가서^서숨^숨어^어잇^잇스^스며^며미^미쳐^쳐도^도망^망하^하지^지못^못

서말뭇마다 폭백을 주니 석소저는 자기 신세를 자탄하고 왕왕이 남모르는 눈물을 흘린
 석가만 엿더라 그이 들히 정월엔 진도 비로 소집에 드러와 일변 석소저의 안부를 무르
 며 진과 이하 집안 사람의 기간 정황을 숨히 여물시 사오십년 풍상에 단련한 진도의 눈치
 로 집안일이 엿지되는 것을 모르리오 일변 석소저를 불상이 너기 고일변으로 진과를 악
 한게 집으로 싱각하나 풀을 치미 배음을 놀낼가 두려 하야 비밀이 진과를 디하야 사리에
 당연한 말로 기유하니 진과 장부의 말을 두려 하야 외면으로 석소저를 처음과 갓치
 만나 엿지진가의 형적 이 드러나지 아니하리 오이 석진도 석소저의 나히어 언간 십
 오세 됨을 반기여 하니 급히 어진 배필을 구하야 성혼코자 함이라 첫지는 석소저의 백년
 을 부탁하게 함이 오프는 자기 처음 먹었던 솟을 시종이 여일한 성취하라 함이 오그
 다음은 제 집안에 풍파가 자연히 휴식 되리라 하야 혼처를 심성 구지하나 가합한 곳이 업
 서서 반년 동안을 미루어나오는 중한 갓진과의 마음이 처음과 갓치 화평함을 깃거하던
 차에 가을바람이 높흐니 상업에서 종사하는 몸이 되야 다시 집을 떠나 외방으로 향할진
 아내를 데려가 석소저의 보호하야 줄일을 신신 당부하야 고즉일에 의정하니라 진과 진도

의멀니며 나물보고 그동안 가슴속에 잠복하야 있던 화려했던 천만장이 나다시 나타나는
 백령 백미 석소저에게 직접 대하야서는 별로 허담을 드러말할 것이 업스므로
 익미 춘매에 대하야 매일 잘잘못을 묻고 함부로 쓰짓는 말이 무소부지하나
 공교히 하로아침은 춘매 세수를 일즉 찌노오므로 진과가 세수할 시간 에 미쳐서 물
 이이 의식은 진과 발연대로 하야 춘매를 불너 세우고 한나절을 란타하거늘 석소
 저 춘매의 미맞는 정상을 보미살을 찌가늠는 듯하야 진과 압해나가서 공손한 말로 만
 류하더니 진과로 더욱 등하야 춘매와 소저를 물니치고 직시제집사람을 호령하
 야 나르되 저 방자한 석가녀자니 집에 드러와 스스로 교만하거니와 원인은 너집에 팔
 니여온게 집아히라 엿지저를 돕히리요이다 음브러는 석소저라 나르지 말고 고향이라
 부르라 하며 다시 소저를 향하야 쓰짓되 너 고향은 래일 브터 부엌에 드러가서 너집 종으
 로드난 하라만 약거행을 잘못하면 춘매와 갓치 마조리라 하며 종일 쓰짓기를 마지아
 나하더니 진도에 게로 전인하야 보닌사람이 이날 도착하야 봉물을 집과 편지 두장을 전
 하니 한 장 편지는 석소저던이 오한장은 진과던이라 진과 편지에 하얏스되 보닌 봉물

石小姐 婚需

石小姐 居處

房

看守

은곳선소저의 혼슈이나 선소저거처하난방으로바더드려 잘간슈한면나문말은내가
십여일후에드러가것기로적지안노라 하얏거늘진과보기를다하미라느불에섭을더

한이와갓치마음가온대로셔불길이다시크게나려나느니라 계향의상자를낫낫치여러낫코
방으로쓰되리고다시계향의방으로쫓쳐드러가더니 계향의상자를낫낫치여러낫코
이왕브러진도에게로보닌봉물을일일이쓰니여제방으로돌녀오며석소저와춘미를

가라쳐니르되녀의두식구내집에드러와오륙년을금의옥식에의탁한것도과만하거
든이와갓흔릉라금슈를너를위하야내여유리오인하야방안에노인금침사지거더가
는지라이날석소저는다만눈물을흘날뿐이라진과이이날밤에하시싱각하니진도

의도라을날이며지아니하나만일진도도라와서계향의일을알면결코나를용서치
아니하리라진도드러오기전에저의두사람형적을엿시하리라하고계교를싱각하야

밤에잠을이루지못하더니이른날이웃에사난장과라하난로구를급히청하야오니이
장과는지금나히스십여세라십여년전부터인물매미하느방간으로이디방에서유
명한장과이라진과장과를대하야계향춘리오륙년동안을제집에서신세세치난

말을설명하더니르되저를당초에속량하야온몸갑이느밧으면하로밧비니문명을내
보내려하나니어느곳이던지원대처를급히구할도리잇느노장과그말듯고대히하야

니르되일이묘하도다지금이고을사도에서무남독녀로기른싸님을진히부운자와와
결혼하야혼구가이미다준비되얏스느그신부모시고갈시비엿느지라내그시비구하
는부락을맞흔지여러날이로되합당혼자격이엄셔아죽구하지못하얏스니만일계향

으로하야금줄기여팔고조할진대본관사도에서필경중가를앗기지아니하리라당초
에속량하야온몸갑에서몇비를더바더줄터이니진과는의소청을듯고조하난노진
과니르되과연장과의주선이여의하면무슴어려움이잇스리오장과양구에니르

되나 의성질되난아히잇서나히지금이십이년잇스나아즉장가들을지못한지라춘미
로하야금이아한에게허락할소나진과락중하야니르되몬져계향을조처하면춘미

의일은곳시행하겠노라장과우슴을피우고혼연이니러가더라본래이고을 군슈의
姓名은남궁로니 지금진히부운고돌과동문슈학훈의잇더니서로환로에나선이후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로백리밧게다사릴시피차에다사리난관할이디경이접흔지라고들부운은아들을두

엇스니 맛은고 만년 이 오다 음은고 역년이 라나 회서로 두살을 넘으로 학려지년이 갖가
 爲先長子萬年爲媒婆南宮郡守
 우리위선장자 만년을 위하야 미파를 남궁군수집에 보내여 통혼하니 남궁군수난슬하
 十七歲
 에 십칠세 된 딸 하나 생이라 일흠은 서경이니 지모가 겸전하야 장중보옥 갖치기르던터
 高達府尹通婚
 에 고달부윤의 통혼함을 보고 드의여 그 딸 서경으로 하야 품고 만년과 백년佳約을 정하
 吉期定十月月中旬
 니 길기가 덩히 십월 중순이라 다만 서경에 첫해 보낼 시비 업스므로 장파를 불너서 부탁
 年紀小姐相敵性情伶敏侍婢求
 하되 년의가 소저와 상적하고 성격이 영민한 시비를 구하야 오면 몸값은 앓기 지아니하
 不遇數日張婆
 리라 하얏더니 불과 수일에 장파드리와 진도의 집에 잇는 제향을 천거하되 몸값은 일
 百五十兩南宮郡守即時
 백오십량이라 하거늘 남궁군수즉시 몸값을 내여 주니라 이씨 장파미 제향의 몸값을
 陳道傳將次桂香行具準備
 밧어 진도에 제향하고 장차 제향보낼 행구를 준비할시 교자를 문밧게 머므르고 장파
 桂香房桂香督促桂香
 제향의 방에 드러가서 제향을 나가자 독촉하니 제향이 엇지 되었을 아지 못하야 다만 춘
 梅香食口桂香治洽
 미와 두식구서로 붓잡고 흠뻑히 우난지라 장파와 첫해 보다가 제향다려니르되 난우
 橋子內衙使道膝下
 름을 굶치고 교자에 오루라이길로 내아 드러가스도 슬하에서 자근아 씨를 잘 섬기면
 平生活富貴石小姐
 네 몸에만 평생에 부귀를 누림이나라 석소저우름을 굶치고 놀나 무르되 장파난 엇지

나르노 말이 노장파나르되 지금이 고을스도 제셔 그 따님을 위하야 시비를 구하기로 주
 人陳婆許諾
 인진과나를 허락하고 이미 너의 몸값까지 차졌스니 아나가 지 못하리라 제향이 하길
 春梅離別橋子
 업서 춘미를 리별하고 교자에 오르니 춘미하날을 부르지저 통곡하더라 석소저의교
 本縣內衙南宮郡守大喜
 자이미 본현내아에 이르니 남궁군수의 외집안이 제향의 아름다운 자식을 보고 대경
 小怪南宮郡守
 소괴이녀기더라 남궁군수대희하야 제향의 일흠을 묻고 나르되 일흠이 심히 아름답
 多 하야 일흠을 못치 아니하고 인하야 제향으로 부르니라 이날 장파내아에서 나와
 陳婆春梅
 진과외집에 드러가 춘미를 다려다가 저의 성질 정감통과 불일성례하니 춘미는 정감통
 夫妻桂香番瑞卿小姐侍婢
 과 부처가 되엿더라 춘미다 제향은 한 번서 경소저의 시비로 드러간 후로 압헤 당직채
 如恐不及自己以往身分
 을 여공불급히 지나가나 조귀의 이와 신분을 생각할면 엇지 감격한 심스 업스리오하로
 忽然
 노들 압헤서 문지를 쓰러나가더니 홀연이 비를 멈치고 하염업는 눈물을 흘니고 서는지
 南宮郡守內衙
 라이씨 맛참 남궁군수내아에 드러와 잇다가 영창들으로 제향에 우는 양을 보고 괴이
 桂香事由
 히녀기여 제향을 불너우는 사유를 무르니 제향이 더욱 울기를 못치 아니하며 줄기여
 南宮郡守再三質問桂香
 말하지 아니하거늘 남궁군수가 지슴질문하니 제향이 썩러 안저니르되 소비어려슬

떡에 춘미라 하난 시비로 더부러 저 쓸 압혜서 공을 치다가 공을 구을녀 쓸 압구 먹속으로

드러가미 소비의로야 소비다려니르되네 잊지하면 저공이 스사로 싸위에 올라오게

홀고 소비 춘미로 하야 금물 두통을 지러다 부으니 그공이 물에 떠서나 오느니라

심히 소비의 총명함을 깃거하더니 지금들을 쓸다보온즉 그씨에 보던 구멍은 의구히

잇스나 기간 소비의 집은 령성하야 지금소비의 가련호신세를 생각하고 자연 눈물나

음을 지닷지 못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용서하시압소서 남궁군슈 개항의 말을 드르

미 십분의 아하야 다사 무르되네가 잊지하야 어러 쓸씨에 저 쓸 압혜서 놀알스며 녀의 아

비논누구인고래력을 자세히 말하여라 개항이 처연히 답하되 소비의 부친은 른년 전

에이 고을 군슈로 잇던 석진군슈이온대 불행이 환곡의 실화혼손희를 비상하다가 인하

야 병들어 죽고 장금의 부족으로 소비난 공庭에 몰입되얏더니 다히히 진도의 속낭할을

힘입었다가 진파가 용납지 못함으로 쇼저의 시비로 몸이 팔니 었는이다 남궁군슈이 개

향의 세말을 드르미 개항은 곳고인의 딸이 오동관의 자식이라 일즉 고인선진은 청백

관원으로 아논고로 평일에 사함을 대하면 미양선진의 처제를 들어 말하던 터이러니 그

설을 비로소 대하매 마음에 고인을 맞는 듯하야 부인을 도라보며 이르되 이아히는 고인

의 딸이라 내듯고 보지 못하였스면 모르려니와 하날이 저를 불쌍이녀기사 내집으로 보

니셨스니 내집에서 붙잡어 주지아나 하면 연의를 모름이라 고인선진은 황던디하에서

나를 잊지생각하리 오즉시녀아서 경을 불너서 년치를 차리며 형식의 의를 밋게하니 부

인이 다시 개항의 등을 어로 만지며 이르되 진즉이지 못함으로 너로하야 금시비의하대

를 밋게 하얏스니 잊지불안치안나하라 차후로는 너의 형매간에 조흔의를 직히게하라

부탁하며 집안사람에게 발포하야 개항을 돌히여 석쇼저라 부르게한 후다만녀아서 경

의 시비업음을 걱정하니 남궁군슈이 스스로서 이르되 내 조흔도리잇다하며 즉시 편지를

써서 고달부윤집으로 보내더라 이씨에 고부윤집에서는 장조만년의 혼사를 정호후로

길기가 점점갓가오미 집안내외가 분주이지나더니 규슈집으로 편지이르거늘 고들

부윤이 밋어보나하얏스되 산만하며 아들을 장가드리고 딸을 시집보내는것은 부모의 깃분 마음이나니 몸은 못

코움을 붙잡는것은 늙은 선비의 고명한 뜻이라 복은 근일에 딸조식을 위하야 시비를

의 딸이라 내듯고 보지 못하였스면 모르려니와 하날이 저를 불쌍이녀기사 내집으로 보

니셨스니 내집에서 붙잡어 주지아나 하면 연의를 모름이라 고인선진은 황던디하에서

나를 잊지생각하리 오즉시녀아서 경을 불너서 년치를 차리며 형식의 의를 밋게하니 부

인이 다시 개항의 등을 어로 만지며 이르되 진즉이지 못함으로 너로하야 금시비의하대

를 밋게 하얏스니 잊지불안치안나하라 차후로는 너의 형매간에 조흔의를 직히게하라

부탁하며 집안사람에게 발포하야 개항을 돌히여 석쇼저라 부르게한 후다만녀아서 경

의 시비업음을 걱정하니 남궁군슈이 스스로서 이르되 내 조흔도리잇다하며 즉시 편지를

써서 고달부윤집으로 보내더라 이씨에 고부윤집에서는 장조만년의 혼사를 정호후로

길기가 점점갓가오미 집안내외가 분주이지나더니 규슈집으로 편지이르거늘 고들

부윤이 밋어보나하얏스되 산만하며 아들을 장가드리고 딸을 시집보내는것은 부모의 깃분 마음이나니 몸은 못

코움을 붙잡는것은 늙은 선비의 고명한 뜻이라 복은 근일에 딸조식을 위하야 시비를

코움을 붙잡는것은 늙은 선비의 고명한 뜻이라 복은 근일에 딸조식을 위하야 시비를

頻類 婚類 하던터이라이날 혼수에 대한 편지를 고달부윤내아로부치니 하얏스되

간단이적스오며의탁이업는 규슈에게장가드는것은비록놀흔의라하것스나 이미 琴瑟의락 樂

을이루지아니하얏스나일즉월로의의를미져서길의가머지아니한지라지금에홀 忽

면치못할지라바라건디존문에서는세번성각하시야만다시이와당한언약을뜻게 是非

고달부윤의부인이이편지를보고부윤에게의논하니부윤이그스의를듯더니붓그려 昌原內衙昔姓謹白

온빛을의우고이르되니창졸에성각지못함으로실례함이적지아니하다다시성 南宮老 婚事 妙道理 夫人 勸 南宮郡守 答狀

각하니남궁로의집혼수에묘한도리잇도다하고부인을권하야남궁군수집답장을다 以往緣分 緣分取

거보이니하얏스되 以往緣分 緣分取

할을즐기여아니함은존문에서례법을직히미라천구에들지아히잇서나희바야호 令愛 僕 長男 高萬年 定 緣分 兒孩

로십칠세된지라마라건디령애는복의장남고만년으로당혼연분을이루게하고석 家女子 僕 次男 高億年 許諾 新郎 新婦 雙

가녀즈는복의차남고억년에게허락하시면아름다운신랑과아름다운신부가쌍으 因緣 一動一靜 百年 婚具 別 準備

로인연을이루어임동일정에백년을갓치하게하옵소서호구도별로히준비할것업 吉期 淺誠 敬復 及其辭意 喜

고길기도갓흔날이아름답다하오나모름조기천성을빛초아급호려쫓츠시고다른 鎮海內衙金姓 敬復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위관원이언연이압해와이르되나논이그을량동덕군수석진이라불행이이그을에서 位官員 儼然 兩等前郡守 石珍 不幸

이그지못하야밤이깊도록잠을이루지못하더니그밤재벽에숨을쉬니사모풍덕호일 紗帽風帶 一

외고달부윤의두집의기를칭송치아니리업더라이날남궁군수부처는섬섬하음을 高達府尹 義氣 稱頌 南宮郡守

로마져드리여일문에서교례하고우려하야보낼시길에서보난사람마다남궁군수 一門內 交禮 于禮 高府尹 新郎 雙

과패물을한가지도차등이업시작만하야늦코길기를기다리여고부윤집신랑을쌍으 佩物 次等 吉期 高府尹 新郎 雙

출망외하야이르되고달의집의고는천고에뛰어나리로다드디여혼수를난우어의복 出望外 高達 義氣 千古 高府尹 新郎 雙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남궁군수이때에부인과갓치안저고부윤집회답을기다리더니금기스의를보미희 南宮郡守 夫人 高府尹 回答 及其辭意 喜

죽은후에上帝에 올림셔나 의 청렴함을 불상이녀 기사 불너 올니시야나로 하야 금련개

에모시게하시더니 공이 농흔의를 들어 혈혈 무의 한나의 딸을 건지여 주옵기 그 사유를

상제전에 주달하얏더니 상제스게 올림셔 특별이 공의 음덕을 칭가 하사 공의 아들하느를

지시하시사 공의 문호를 빛나게 하셧느니라 하며 표연이가더라 그후로 과연 남궁군수

부인이 스십이후에 비로소 아들나르니 일흔을 현석이이라 하니라 현석이 점점스

라나셔 저의 부모싱던에 마한으로 드러가 버살이 경상에 이르르고 달부윤의 두아들도

본국에서 동방급대하야 부귀가 한때에 현석이아더라 차설진도 집에 도라오미셔

쇼저와 춘미업는 지라 진파에 계질분혼 즉진파이르되두아하야 반에 갓치 도망하얏

다하거늘 진도마참니고 지듯지아니하더니 그후에 본군수집으로셔 진히부윤집으

로성혼함을듯고 대경하야 춘미의 거취를 사득하고 춘미를 속신하야 석쇼저에게로보

니고자하니이때 춘미정갑룡과 부처의은애가이의갑혀서로떠나지못하느니라진

도고달부윤집에 차저가서 진파의 죄를 대신하야 사과하고 춘미의시말을 고한디고

달부윤이 즉시 춘미와 정갑룡을 불너의려집사람을 삼고 진도를후이상주니진도바

지아니하고 진파의 불량함을입히한하야진파를다시도라보지아니하고다른곳으로

가서점은게집을엇어동거하다가아들형대를나으니이것이모다적선한결과이니라

화설지나한문대때에세도로한참유명하던등통이라하는신하잇스니문대나가면반

다시등통으로뒤를싸르게하며드러오미등통으로한가지거쳐하나는총이이로비할

데업더라이때에관상잘보는허부라하는사람이등통의상을보고가로되한세부귀는

극족하느다만종리문이라하는유름살이입으로드러가스니필경은곧죽기를면치

못하리라하거늘한문대그말듯고되로하야이르되등통의부귀는내게달니엇거늘

누가등통으로하야금곤궁하게하리오드되여서촉동광을등통에게닉여주어스스로

를먹으므로감히옥레에갓가못하것다하고나가는지라문대탄식하되지정은부

차마참황태자가드러오거날문대부림을살나하교하나황태자바야호로생선회

거서고름이더져나올식등통이입을딛이고싸러내니문대상패함을신기이녀기던

돈을지여쓰게하니등통의부함이나라를딛적할너라한번은문대우연이부림이싱

을먹으므로감히옥레에갓가못하것다하고나가는지라문대탄식하되지정은부

차마참황태자가드러오거날문대부림을살나하교하나황태자바야호로생선회

거서고름이더져나올식등통이입을딛이고싸러내니문대상패함을신기이녀기던

돈을지여쓰게하니등통의부함이나라를딛적할너라한번은문대우연이부림이싱

을먹으므로감히옥레에갓가못하것다하고나가는지라문대탄식하되지정은부

차마참황태자가드러오거날문대부림을살나하교하나황태자바야호로생선회

거서고름이더져나올식등통이입을딛이고싸러내니문대상패함을신기이녀기던

돈을지여쓰게하니등통의부함이나라를딛적할너라한번은문대우연이부림이싱

을먹으므로감히옥레에갓가못하것다하고나가는지라문대탄식하되지정은부

차마참황태자가드러오거날문대부림을살나하교하나황태자바야호로생선회

거서고름이더져나올식등통이입을딛이고싸러내니문대상패함을신기이녀기던

돈을지여쓰게하니등통의부함이나라를딛적할너라한번은문대우연이부림이싱

을먹으므로감히옥레에갓가못하것다하고나가는지라문대탄식하되지정은부

차마참황태자가드러오거날문대부림을살나하교하나황태자바야호로생선회

거서고름이더져나올식등통이입을딛이고싸러내니문대상패함을신기이녀기던

돈을지여쓰게하니등통의부함이나라를딛적할너라한번은문대우연이부림이싱

자간만하니 업다 子間 子息 다했더니 자식은 아비의 부림을 알지 못하도 鄧通 能 등동이 능히나 鄧通 能의 부림을
 알어 주니 鄧通 至愛 父子間 등동의 지애는 부자간보다 낫다 하얏스니 後 文帝 崩御 恩寵 可 斟酌 등동의 은총은 가히 짐작하리로다
 황태자 漢景帝 因 그 말듯고 갑히 등동을 미워하더니 그 후에 後 文帝 崩御 恩寵 可 斟酌 문제가 붕어하시니 皇太子 即位 황태자 즉위하
 니 漢景帝 因 곳한 데라 인하여 등동의 죄를 다 사릴새 國貨 偽造 犯 국화위조범으로 모라서 등동의 재산을 국
 고에 몰입하고 등동은 비인방에 류치하여 飲食 음식을 씌으니 周亞父 縱理紋 등동이 과연 굴머죽어 스며도
 한 데 漢景帝 出將入相 氣勢 에 출장입상하야 世 上 세상에 혼들던 주야부도 중리문이 입으로 드러간
 지라 景帝 亞父 威嚴 경제이 아부의 위엄이 넘어 광장함을 쓰리며 皇室 犯 罪 황실범으로 죄을 얻거 서 옥에 가두니
 아부는 분한을 이기지 못하야 먹지 아니하고 죽으니 이 두 사람은 부귀가 혼련동디하야
 스나 句 節 欠 節 因 열골에나 타난 흠절로 인하여 상가에 술법가운데서 죽엇도다 그러나 富貴 掀天動地 또 상셔에 그
 러치 아니한 귀절이 잇스니 저 사람의 열골을 상보는 것이 저 사람의 마음을 상보는 이만
 못하다 自己 福 滅 나 이 는 엇지 니 르미뇨 假 命 上 等 富貴 相 가령 상등 부귀에 상을 타고 난 사람이 라도 남의 積 惡 계악
 을 正 積善 면자 自己 福 滅 그의 복을 감하는 수도 잇고 至 極 凶惡 相 지극히 흉악한 상을 타고 난 사람이 라도 심지가 단
 정하고 남의 계저선을 만히 하면 반화위복되는 슈도 잇스니 이것은 가위인 정승던이 오

상법이 맞치지 못함은 아니니 以前 經歷 證據 라 이전 사람의 경험으로 증거를 드러 말할진디 支那 唐 지나 당나
 라 시대 時代 裴度 에 비도라 하는 사람이 잇스니 이 사람이 역시 종리문이 넘어 香山寺 드려간 지라 여러
 서브러 집이 艱難 四方 漂白 간난하야 三條寶帶 삼방으로 표박하야 단이다 香山寺 가향산스라 하는 절에 드러가더니 우
 연이 然 利用 利益 그 절우를 벗호로 서삼도 보되 한아를 주은 지라 裴度 리도 생각하되 이 주은 물건을 너
 가 利用 利益 리용하면 남의 이익을 덜어 서내에 불탔으니 居未久 엇지 참아 그리한 일을 행하리 요 드되여
 그 物 件 것혜 안저서 물건이 른사 략오기를 기다리더니 婦人 거미구에 절은 부인하 나 三條寶帶 히올며와서
 말하되 獄吏 첩의 늑은 아비가 불행이 옥에 갓치여 잇는디 妾 世傳 첩의 집에서 세전하는 삼도 보되를
 옥리에 祝願 次 개박치면 아비의 죄를 속하야 洗手 준다 하올기로 그 물건을 가지고 이 절로 지나다가
 부처님 앞헤 祝願 次 춘원홀차로 우물에 와서 세수하다가 보되를 빼치엿스오니 裴度 欣然 寶帶 누구던지 주은
 나 求 잇것든 내여 주시면 늑은 아비를 구하야 내것노라 하는 지라 裴度 리도 欣然 寶帶 혼연이 보되를 내
 여 주니 婦人 致謝 그 부인이 치스하고 가더라 그 후 後 觀相 관상하는 사람이 비도를 보고 놀내어 일으되
 공이 公 相貌 變改 상모가 변기 되얏는지라 至今 餓死之相 지금은 아스지상이 아닌즉 무숨을 덕을 세치일이 있나뇨
 비도 裴度 아 모일도 업노라 디답스니 對答 相士 再三 質問 상사 再 三 質問 지슴질문하는 지라 배도 裴度 香山寺 향산사에서 삼도

寶帶主人
 모기를 주인에 게 내여 줄 일을 말하니 상소
 富貴可兩全
 에 부귀를 가히 량전하리라 하더니 과연
 年裴度平陰德
 하얏스니 배도의 평생에 음덕을 세친일이 비단
 年裴度軍士
 년에 배도 군사를 거나리고 회서 폭도 오원
 世界振動各處暴徒沉寢
 이 세계의 진동하야 각처의 폭도가 침식이
 功晉國公爵
 되고 그 공을 돕히여 진국공을 작주니라 배
 大治四方
 치하야 스방에 일이 업스나 헌데
 裴度憲帝
 배도 여러 번 상소하되 헌데 뜻지아나
 領首指稱憲帝
 령수라 지칭하니 헌데
 朝廷決定自然
 조정을 말할아니 하기로 결정하미 자연
 消遣四方府尹郡守裴晉公慰勞歌舞人物當代絕等
 소견하니 스방에 부류 군수가 배진공을 위
 縣小娥
 면서로 갑을 앓기 지아나 하고 다도 아구
 現에 사던 소아라 하느게 잡아해도 배진공
 兒孩裴晉公門下
 문하에 올녀와 잇스니 배진공은 밋쳐그
 寶善積善後日
 後日

兒孩細末
아해에세말을아지못하더라본래소아의성은황가인대만천현황진사의설로서일즉
本唐壁
성례치못하였더니그후로신랑될당벽이우연이초사로브터서외임으로단일새처음
成禮
是는필주용종현위로재임에다시월주회개승으로전근되니어언간황소의호사는
漸漸
점점느저가더라그동안소는자연히장성하여식태가거갈사록괴묘하다항상
點點
是은얼골은조안화가이를먹으며잇고버들가지에물오르듯하는몸은형산백옥을삭
兼顏花
거세운듯한대검하야음을들이정통매황소의일홈이일방면에놓혔더라이에진
州刺史當代一等音律精通黃小娥一方面晉
주자사—당대에일등가는미식을구하니진주자사도역시비진공문하에박치고자함
地方內小娥色態超等萬泉縣令獨步
이러라고디방내에서소의식태가초등함을듯고만천현령에게촉탁하여소를구
萬泉縣令回報小娥姿色歌舞當代獨步
하라하나만천현령이회보하되소의자식과가우는당대에독보이나다만당시태학
求道理
사의설이라구할도리가엄다하거늘자사—만천현령을친히보고이르되세상이돈
鬼神能
이잇스면귀신을능히부리는지라내황금삼십만으로써소의몸값을줄터이니만천
苦
은모름직이슈고를앗기지말고이아해를구하야보니라만천이상관의촉탁을항거하

온전히보관하라 인하여 京師에 도착하여 배진공의 집갓가히려 館定 회승려
 임한문부를내부에을닌후 後館 배진공의 집소식을탐문하나 용이히소
 개를엇지못하니엇지하여 배진공집소식이산갓치막히고바다갓치급혔던고대저당
 나라는전제정치이라 皇室 화실로브러인민에이르거지 階級 계급을찾아압제로구속되리라
 그러함으로대신지위에잇는사람이면사형으로인하여 감히송사하지못하고사자에
 도훈금이지엄하야외인이임의로출입을못하는연고이라 당벽은다만분완한마음
 을품고신산한세월을려관에서지내더니내부로서 당벽의력임이래로결점이업음을
 보고호주참군으로서임하니 당벽이이날사령서를받고당일에행리를슈습하야배를
 잡아라고호주참군으로하향할새여러날만에동진어구에이르러배를대이고밤을지내더니야
 반에홀연 강도십여명 강도십여명이별뻬갓치대드리당벽의일행을결박하고행리를낫낫치세
 아서가니이강도는당벽이소아의몸갑삼십만금을씩고가는것을아는재 京師 경사로보
 터뒤를쫓쳐옴이라 당벽의일행이이른날숨혀보니호주로는문부한개도남아
 있지아니하거날당벽이할일업서경사로회정하야내부에그사유를보고하니내부로

서당벽의도란이증거가충분치못하다 하야호주록사를인하야사면시키는지라 당벽
 이엇시할수업시이왕류련하든려관으로도라오나려비가필절되야련일두류하며자
 괴의신세락척함을한탄하고일변으로소아의일을급히원망하야 주주야야에눈물마
 를때가엎더니하로저녀에는밤이깊은후에평복한사람한아이드러와서당벽을대하
 야성명 姓名 본籍을무르며 詰問 힐문하되무슨직업이잇서려관에드러와여러날두류하나노
 당벽이형사인가의심하야 對答 대답이혹외척될가 겁니므로자괴의류련하는사유를자세
 이말하니그스름이이르되공이만일지금에락척하야본직을회복코자할진대엇지비
 晉公 呼冤 진공을차져서호원하지아나하나하노비진공은당대에관후한디신이라락척한스름을
 구원하는풍정이적지아나하거날공이일즉듯지못하얏나노 당벽이송연이눈물을흘
 니며머리를흔들어이르되나듯는데는배진공이라노말을너지말지어다그스름이놀
 나니르되공이배진공과무슨혐의잇노 당벽이줄기여 對答 대답지아나하니그스름이재
 三勤懇 嫌疑 숨근간히못는지라 당벽이그스름을자세히살피보니나희반백지년이오언어동정이
 偉大 長者 위대한장자이라이에조흔스름으로짐작하고전후실정을들어말하되일즉이만천현

黃進士의 딸과 결혼하고 자기官路에奔走하여彼此長成
 못하였더니當時裴晉公의 딸을 조와할새晉州刺史裴晉公의 딸이 자식잇스물듯고萬泉縣令
 야디방년에일등되는美色을求하되萬泉縣黃進士의 딸이 자식잇스물듯고萬泉縣令
 으로하야금그녀자를집착하야배진공문하에보내니至今그녀자배진공집에잇는지
 라니로하야金定緣分平生恨望한일을아니나스름을죽
 이리인파정이엇지다르리오내평생에배진공을집히원망하노라그사름이뜻기를다
 하미추연이이르되나스름배진공과친척의의잇슴으로미일배진공의집의외를출입
 하니내공을위하야黃姓女를차져낼지라黃姓女의일홈은무엇인고唐壁對答하되
 그녀자의일홈은쇼아라부르느이다그사름이이러서가며다사부탁하되來日이때이
 면핑연배진공집으로서공의게무숨통지잇스리라하더라唐壁의말을밋지
 아니하더니이른날다시싱각한즉만약그스름이과연배진공과친척의의잇스면배진
 공으로하야公願望을품은나를도러혀히할녀업지아니하도다날이다하도록구을
 너근심하던이밤은후에스오명公差旅館에이르러萬泉縣唐壁을분본이찾는지라

당벽이의심하야對答公差旅館主人을불너말하되당벽이라하는스름
 이누구이노우리는비진공댁분부로이스름을보러왔노라하며主人을호령하니主人
 이집내여당벽을가르미公差旅館主人을불너말하되당벽이라하는스름
 지라당벽이황망이公差를싸러서비진공소저에나르러들압헤서니廳上으로서비진
 공이당벽을불너오르라하거늘당벽이黃姓女를칭謝하거늘나니배진공좌우에모
 신스름이명하야안즈라하거늘인하야부러안즈니배진공이당벽을보고니르되네가
 나를아지못하노다눈을드러나를보라하는지라당벽이배진공을한번보미어제밤려
 관에서한만이슈작하던평복하사름이라당벽이망지소조하야머리를숙이고어제밤
 에언어의촉범됨을連謝罪하사죄하더라배진공이엇지하야어제밤에당벽을려관에서
 맛나보았던고배진공은당시에一品宰相을愛國愛民의義務를負擔
 지라晝夜에마음과몸을게을이못하야밤이면미양평복으로都城內外를巡行민
 정을습히더니偶然이당벽의旅館에드러가서당벽의세말을듯고스저로드러와서그
 이른날쇼아를불너보니果然絶代佳人이라친이쇼아의力력을무른즉唐壁의말과일

毫差錯 호차착이 업거늘 배진공이다 시 못되 너로 할야 금전에 정호랑지에 게로 도로 보내여 주

면 너의 마음이 었더 홀고 소아 그 말을 듯더니 쌍루종 횡상며 목이 메여 디 답하되 쇼첩

의 었은 목숨은 상공에 게 달닌 지라 보내고 아니 보내는 것이 상공 처분에 잇스오니 었지

쇼첩에 게 무르시느 냇가 배진공이 쇼아의 경황을 보고 어 제 당벽의 정상을 생각하미마

음에 스사로 측은 함을 이기지 못하야 다시 쇼아에 게 나르되 너의 랑지를 오날 만나 보게

하리라 하고 그날 밤에 당벽을 불러드리니라 당벽이련하야 사죄함을 보고 배진공이 당

벽 다려나르되 내디 방슈령의 폐송하는 물품을 일즉 막지아나 할앗다가 군으로 하여금

거의 백년가약을 어기게 되앗스니 이것이 모다로 부의 허물이라 내군의 부부를 위하야

혼수를 담당하고 혼인을 주장하고 자하노나 오날노 교례함을 사양하지 말는 하미인하

야 자기私邸의 교배를 배설하더니 거미구에 안으로 서스 등롱이 쌍으로 나오며 서비

등이 신부의 복색을 미인하나를 옹위하고 나오니 미인이 꽃황진사의 쌀소아러라 당

벽이 마저서 교배후에 동방화축에서로 만나서 피초그리우던 회포를 서로 말하니 그

갑고 었은 정은 가히 짐작하리로다 잇흔날 배진공이 내부의 동지하야 당벽의 력임하문

簿 調查 則缺點 부를 조사하즉 결점이 업는지라 당벽으로 호주참군을 환림하야 데삼일만에 부임하게

할식 당벽이떠나기를 임하야 비진공압해나가서 비키치은하고 소아로 할가지 길에 오

르나 교자뒤에 혼구가 슈업사파루는 지라 당벽이 었지한 연고를 아지 못하더니 만천현

은곳 호주가는 길가인교로 만천현에 도달하야 일행을 다리고 황진사의 집으로 드러가

니 황진사의 부처 뒷밭에 었던 쌀과의 절혼스위를 영광으로 다시 만나니 그것분마음

이 장차 었더하다 하리오 당벽이 비로소 행리를 안돈하고 뒤에 싸루던 혼구를 상고하니

여러바리가 모다 금은 슈단인데 이것은 배진공이 스사로 담당한 혼슈라 당벽이 황

진사의 부처와 한가지 호주에 부임한 후에 배진공의 은혜를 갑히 감동하야 침향목으로

배진공의 일위화상을 밋드려 늦코 슈복이련면하기를 평생에 축원하얏다하니 당벽의

일도 배진공의 음덕을 싸은 일건스이러라

前定 郎材

雙淚縱橫

相公處分

對答

小妾

景況

郎材

謝罪

連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君

改 正 實 價 覽

蒙學二千字白紙版全一冊	金五十錢	朝鮮語自述全一冊	金一圓	養蠶實驗說全一冊	金一冊
訓蒙輯要 <small>前名童蒙先習白紙版</small> 全一冊	金三十錢	日鮮高等流行尺牘全一冊	金一圓	臨門須知全一冊	金一冊
四體千字白紙版全一冊	金四十錢	無先生英語獨學全一冊	金六十錢	新小雪中松全一冊	金一冊
增補註解明心寶鑑全二冊	金三十五錢	懷中朝鮮書翰文全一冊	金四十錢	說羅記年全一冊	金一冊
新編圖隱集全一冊	金五十錢	刪正五倫行實全一冊	金五十錢	老子道德經全一冊	金一冊
新訂育兒法全一冊	金二十五錢	新編動物學全一冊	金四十錢	通鑑諺解全十五冊	金一冊
訂附圖字典釋要全一冊	金一圓二十錢	農業大要全一冊	金三十錢	懸吐古文後集全一冊	金一冊
學徒指南全一冊	金二十五錢	養鯉新法全一冊	金二十錢	古文全集全一冊	金一冊
伯林巴里全一冊	金二十五錢	新小玉指環全一冊	金三十錢	史略諺解全三冊	金一冊
該文片紙法全一冊	金三十錢	奇緣高鵲橋全一冊	金三十錢	家庭寶鑑全一冊	金一冊
醫門寶鑑洋裝全一冊	金一圓	新刊七書集註全七冊	金一圓三十錢	懷中完全尺牘全一冊	金四十錢
同半裝全一冊	金一圓五十錢	小學集註全二冊	金一圓	原本四書集註全六冊	金一圓
懸吐六韜直解全一冊	金四十錢	蔬菜栽培全一冊	金五十錢	歐顏草楷真蹟全一冊	金五十錢
懸吐孫武子直解全一冊	金三十錢	日韓會話辭典全一冊	金九十錢	李韓八分楷行草六體筆論習字帖全三冊	金一圓三十錢
增補海東詩選全一冊	金一圓三十錢	新纂諺文家庭簡牘全一冊	金四十錢	短編古今奇談集全一冊	金二十五錢
一見能解唐書周易全一冊	金一圓	單方秘要經驗新編全一冊	金四十五錢	楚英鴻門宴全一冊	金三十錢
懸吐淑香傳全一冊	金二十五錢	註解女子寶鑑全一冊	金六十錢	風塵鴻門宴全一冊	金三十錢
新校天機大要全一冊	金一圓	增補註解尺牘全一冊	金三十五錢	古代蘇大成傳全一冊	金十五錢
新校軍訂方藥合編全一冊	金一圓	書法真訣全一冊	金八十錢	新小三快亭全一冊	金二十五錢
精選日語獨學全一冊	金六十錢	無雙諺文尺牘全一冊	金五十錢	古代增修春香傳全一冊	金一圓
日鮮作文千字全一冊	金三十錢	現行法令新編全一冊	金三十錢	小說	金一圓
日鮮對譯書翰文獨習全一冊	金七十五錢	海岡蘭竹譜全二冊	金一圓六十錢		
修正獨習指南全一冊	金一圓二十錢	李少南書帖全二冊	金一圓		
		新編追巡查着守受驗書全一冊	金六十錢		